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04.22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69.50원 (-2.8원)

KOSPI

6,688.47 (+169.38, +2.72%)

KOSDAQ

1,179.03 (+4.18, +0.36%)

국고채 10년 금리

3.653 (-0.037%p)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반도체TOP10 커버드콜액티브, 미국우주TOP10 [박승진]
CrediVille	공적채권 수급부담 점검 [김상만]
실전 퀀트	반도체 낙수효과: 6월까지 로테이션 기회 [이경수]

기업분석

오리온	2026년, 오리온의 시간 [심은주]
LS ELECTRIC	연중 지속되는 분기 최대 실적 기록 경신 [유재선]
SGC에너지	SMP 상승과 발전원가 하락 [유재선]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Q26프리뷰: 기대치 부합. 미국 Patriot를 보완할 천궁-II [채운샘]
CJ대한통운	1Q26 Pre: 택배 MS 상승, but 이익 증가는 더딘 상황 [안도현]

단기투자유망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 KB금융, 한국금융지주, HD건설기계, 삼아알미늄, 리가켐바이오, 덕산테코피아, LIG아큐버, 와이엠티

하나증권

2026년 4월 21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반도체TOP10 커버드콜액티브, 미국우주TOP10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신규 상장 ETF(4/21)
- TIGER 반도체 TOP10 커버드콜 액티브, SOL 미국우주항공 TOP10

TIGER 반도체 TOP10 커버드콜 액티브: 국내 대표 반도체 10개 기업 포트폴리오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개별종목 옵션과 KOSPI200 옵션을 활용하여 커버드콜 포지션을 구축하는 액티브 ETF이다. 액티브 운용 방식을 적용하여 상황에 따라 비교적 유연하게 전략을 조정하는 커버드콜 ETF가 되겠다.

비교지수인 'FnGuide 반도체 TOP10 Capped 지수'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섹터의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을 먼저 편입한다. 이 때 시가총액 상위 2개 종목은 25%의 비중을, 나머지 8개 종목은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을 적용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5%의 개별 비중으로 편입(나머지 8개는 소부장 기업)된다.

커버드콜 포지션의 경우 변동성이 큰 만큼 옵션 프리미엄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개별 주식 콜옵션(+KOSPI200 콜옵션)을 함께 활용하여 분배금 재원을 확보하며, 월 배당 방식을 추구한다. 액티브 운용 방식인 만큼 시장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 내 커버드콜 포지션의 비중도 조절하는 형태의 종목이 되겠다.

비교지수의 주식 포지션 리밸런싱 작업은 매년 3월과 9월의 마지막 영업일에 종목을 선정한 후, 4월과 10월의 선물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에 변경이 이루어진다. 0.45%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커버드콜 액티브 ETF이다.

SOL 미국우주항공 TOP10: 우주 산업을 영위하는 미국 대표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SpaceX의 상장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등 정책과 민간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증시에 상장된 주요 10개 기업들을 선별하여 편입하는 집중형 포트폴리오의 순수 우주항공 테마 ETF 종목이 되겠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종목들 중 우주 산업 관련 기업들로 유니버스를 구성한 후, 메인 키워드(1차 LLM) 'New Space'와 세부 키워드(2차 LLM)들인 'Space Launch', 'Low Earth Orbit Satellites', 'Space Infrastructure'를 반영하여 LLM 유사도 점수를 산출한다. 1차 LLM 기준(0.5점 이상)을 충족하는 시가총액 1위 기업과 편입점수(2차 LLM 유사도 20% + 시가총액 80%) 기준 상위 9개 기업들이 최종 편입 대상으로 선정된다. 시가총액 1위 종목에 대해서는 25% 비중을 할당하고, 나머지 9개 종목들에 대해서는 편입점수 가중방식을 통해 개별 비중을 결정 및 배분한다.

상장일(4/21) 기준 포트폴리오에는 Rocket Lab, AST SpaceMobile, EchoStar, Planet Labs, Globalstar, Firefly Aerospace, Viasat, Intuitive Machines, Iridium Communications, Redwire의 10개 종목들이 편입되어 있다.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에 진행되며, 신규 상장 종목의 경우 산업 내 대표성과 지수 영향력을 고려해 상장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 편입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SpaceX가 상장되면 즉시 포트폴리오에 편입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총 보수는 0.45%가 적용된다.

도표 1. 반도체TOP10 커버드콜액티브, 미국우주TOP10 ETF의 종목 개요

ETF명	TIGER 반도체TOP10커버드콜액티브	SOL 미국우주항공TOP10
상장일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2026년 4월 21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FnGuide 반도체 TOP10 Capped 지수	KEDI 미국우주항공TOP10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실물(패시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45%	0.45%
구성종목 수	10종목	10종목
비중결정방식	일별 적용 - 시가총액 상위 2종목 25% - 나머지 8종목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 시가총액 1위 종목: 25% - 그 외 9개 종목: 편입점수 가중방식 (단, 최하위 2개 종목은 2% 상한)
정기변경	▫ 종목선정: 3, 9월 마지막 영업일 ▫ 정기변경: 4, 10월 옵션 만기일 익주 첫 영업일	연 4회 (3월, 6월, 9월, 12월)

자료: KRX, 하나증권

Credit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김상만 credinal@hanafn.com
RA 김기범 kbkim1@hanafn.com

2026년 4월 22일 | Global Asset Research

CrediVille

공적채권 수급부담 점검

가격이냐 안정이냐

중동사태와 관련된 전개 양상은 아직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관련 사태가 가닥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반 가정과 전망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신용스프레드의 전망 또한 현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는 전반적인 신용스프레드의 움직임이 여타 가격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다는 점이다. 따라서 상황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나가는 그 시점에서 신용스프레드는 이제와 다른 방향성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용스프레드의 속성상 시차를 두고 이슈에 반응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금번 사태의 경우 사실상 전례가 없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관련 경제/산업적 파장이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시장 내부적으로 눈을 돌려보면 금번 사태의 여파로 신용채권의 발행이 예년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고 그 공백을 단기조달시장이 메꾸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발행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영역은 이른바 공적채권(공사채+3대 국책은행)인데 해당 영역의 올해 1분기 발행액은 64조원으로 과거 5년 평균인 44조원을 크게 상회하면서 동료(?)들의 부진을 그나마 만회해주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당초 공적채권의 경우 경기부양차원의 정책집행이 본격화됨에 따라 발행이 예년 대비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그리고 그 같은 수급부담에 대한 우려가 (작년 말 이후) 공사채의 은행채 대비 약세로 나타난 바 있다. 또한 수급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의 일명 '채권발행자협의체'가 구성되기도 하였다.

공적채권의 과거 5년간 연중 분기별 발행추이를 보면 시간이 뒤로 갈수록 발행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무래도 연초보다는 하반기로 가면서 사업 집행이 본격화되는 결과라 보여진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올해 공적채권의 발행 규모는 모두가 예상하는 바와 같이 예년 수준을 의미 있게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만기도래 규모만 쳐도 240조원으로 '25년 발행총액(228조원)을 상회한다. 보수적으로 남은 분기 내내 1분기 수준으로 발행한다고 가정해도(64*4=256) 올해 만기도래분을 상회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예상해왔고 우려했던 공적채권의 수급부담은 현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급부담이 가격부담으로 그대로 온다고 보기도 힘들다. 1분기에 초우량물 신용스프레드의 움직임을 보면 그렇다. 다만 수급부담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가격 측면에서) 낙관적으로 접근하기도 쉽지 않을 따름이다.

한편, 이전 자료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적채권 발행의 증가는 경제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유동성을 보강시키는 효과로 인해 신용위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부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수적 효과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경우에는 지원의 주체가 객체보다는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가격을 택할 것인지 안정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둘 다 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반도체 낙수효과: 6월까지 로테이션 기회

실전 퀀트 | 2026.04.22

Analyst 이경수 gang@hanafn.com

RA 이철현 lch2678@hanafn.com

최근 알파 관련 팩터의 성과 급등세

다음 반도체 실적 모멘텀은 2분기 실적 시즌, 그 전까지 수급의 낙수효과 기대

- 최근 낙폭과대 팩터의 성과를 억눌렀던 다음의 환경이 단기 변곡점에 진입
- 참고로 경험적으로 낙폭과대 팩터(로테이션 에너지) 성과와 역의 상관성이 높은 팩터는 이익 컨센서스 급등, 고환율, 거래대금 폭증, 미국 경기지표 강세 등
- 반도체 컨센서스: 실적 리뷰 리포트 홍수 이후 다음 주부터 단기 소강상태 진입 예상 (작년 4분기 실적 컨센 흐름 참고)
- 매크로 변수: 반도체 실적에 불을 붙이는 원/달러 환율 상승세 및 미국 경기지표의 가파른 상승세 둔화 확인
- 수급 에너지: 코스피 거래대금의 다소 둔화된 흐름이 오히려 '중소형주/소외주'로의 수급 분산을 유도
- 점차 반도체의 '선 주가 / 후 이익' 사이의 래깅 기간이 짧아지면서, 이익의 Peak Out 직전에 수급은 이미 다음 타자를 찾아 이동하는 경향이 뚜렷
- 3분기까지 반도체 실적의 상향폭 뚜렷한 바, 결국 다음 분기 실적 상향이 본격화되기 전인 6월까지는 일시적으로 반도체의 수급 낙수효과(로테이션) 기회
- 최근 시장은 '알파 전략'에 관심 증가, 최근 수익률 상위 스타일은 거래대금/증가율 상위, 실적 및 목표주가(TP) 상향, 신용융자 상위 등 수급과 펀더멘털 개선이 동시에 확인되는 종목
- 건설/인프라: DL이앤씨, 대우건설, 삼성E&A
- IT부품/장비: 대덕전자, 서진시스템, 심텍, 고영, ISC
- 2차전지/소재: 엘앤에프, 에코프로머티, OCI홀딩스
- 전력/에너지: 대한전선, 산일전기, 비츠로셀
- 콘텐츠/반도체소재: 펄어비스, RFHIC, 동진쎄미켐
- 기타 알파: 미래에셋벤처투자

2026년 4월 22일 | 기업분석_Update

오리온 (271560)

2026년, 오리온의 시간

BUY (유지)

목표주가(12M)	200,000원
현재주가(4.21)	135,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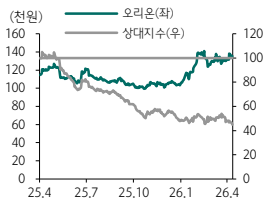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388.47
52주 최고/최저(원)	141,000/99,300
시가총액(십억원)	5,353.2
시가총액비중(%)	0.10
발행주식수(천주)	39,536.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1.7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8.2
외국인지분율(%)	36.77
주요주주 지분율(%)	
오리온홀딩스 외 9 인	43.81
국민연금공단	9.1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631.6	3,866.9
영업이익(십억원)	633.4	688.0
순이익(십억원)	477.6	522.5
EPS(원)	11,878	13,027
BPS(원)	103,737	113,45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104.3	3,332.4	3,679.3	3,900.0
영업이익	543.6	558.3	650.7	729.3
세전이익	692.2	546.6	684.1	768.2
순이익	524.6	382.7	490.3	553.3
EPS	13,269	9,680	12,401	13,995
증감율	39.28	(27.05)	28.11	12.85
PER	7.72	10.92	10.89	9.65
PBR	1.17	1.10	1.28	1.17
EV/EBITDA	4.37	4.15	4.87	4.10
ROE	16.57	10.51	12.30	12.69
BPS	87,814	96,349	105,250	115,346
DPS	2,500	3,500	3,900	4,400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Q26 Re: 시장 기대 상회

1~3월 단순 합산 연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9,349억원(YoY 16.0%), 1,691억원(YoY 27.7%)을 기록했다.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공시했다. 국가별 탑라인은 한국/중국/베트남/러시아가 각각 YoY 0.4%/24.8%/17.9%/34.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로컬 통화 기준 중국/베트남/러시아가 각각 YoY 19%/ 20%/ 15%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당사 예상을 상회하는 탑라인을 시현했다. 춘절 기간(전년 11월~2월) 물량은 YoY 7% 증가 했으며, 이후에도 간식/온라인 채널에서의 고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베트남은 종합선물세트 판매 호조 및 쌀과자 카테고리 확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는 1월 비우호적인 기상 상황이 정상화되면서 다시 두 자리 수 출고 성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달라진 '중국' 체력, 연중 호실적 이어질 것

오리온의 올해 실적 개선 Key는 중국이다. 중국은 올해 매출 1.4조원을 상회하여 역사적 매출을 경신할 것으로 전망한다. 약 10년 만에 두 자리 수 탑라인 성장이 가능해 보인다. 고성장 중인 간식 및 온라인 채널에서의 보폭 확대가 고무적이다. '간식 채널'은 '가성비'를 앞세우면서 코로나 이후 급성장 중이다. 하반기도 간식 채널 주요 Player 상장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시, 올해~내년도 간식 채널 점포 수 확장은 유효해 보인다. 오리온의 간식 채널 향 매출은 지난 5년 간 연평균 73% 성장했다. 간식 채널 비중은 2020년 2% 내외→2025년 26%까지 큰 폭 상승한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는 30%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한다. 손익 측면에서는 2Q25 출혈 경쟁 기인한 기저효과 및 '카카오' 등 원재료 부담 완화가 긍정적이다. 하반기 갈수록 중국 내 CPI 정상화와 내수 부양책이 맞물리면서 내수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호실적 + 배당 확대

현 주가는 역사적 하단인 12개월 Fwd PER 10배 내외에서 거래 중이다. 중국이 견인할 유의미한 성장세 및 배당 확대 기조 감안시 적극적인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2026년 4월 22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LS ELECTRIC (010120)

연중 지속되는 분기 최대 실적 기록 경신

BUY (유지)

목표주가(12M)	220,000원(상향)
현재주가(4.21)	184,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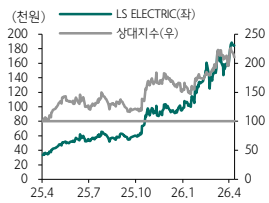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388.47
52주 최고/최저(원)	188,600/34,520
시가총액(십억원)	27,705.0
시가총액비중(%)	0.53
발행주식수(천주)	150,000.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09.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37.2
외국인지분율(%)	21.87
주요주주 지분율(%)	
LS 외 10 인	48.48
국민연금공단	8.7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051.4	7,035.6
영업이익(십억원)	638.7	853.5
순이익(십억원)	450.0	609.5
EPS(원)	3,054	4,131
BPS(원)	16,232	19,55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551.8	4,965.8	6,091.6	6,743.1
영업이익	389.7	426.4	648.1	817.4
세전이익	333.4	410.1	660.8	797.0
순이익	238.7	286.6	504.1	602.7
EPS	1,591	1,911	3,361	4,018
증감율	15.88	20.11	75.88	19.55
PER	20.21	48.14	54.95	45.97
PBR	2.61	6.64	11.11	9.54
EV/EBITDA	11.11	26.02	35.42	28.66
ROE	13.44	14.67	22.14	22.41
BPS	12,334	13,864	16,631	19,360
DPS	580	600	1,300	1,6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220,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LS ELECTRIC의 목표주가를 220,000원으로 기존대비 77.4% 상향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027년 예상 EPS에 목표 PER 55배를 적용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인건비 관련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음에도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1분기 신규 수주는 1.1조원으로 전년대비 27.4% 증가했다. 초고압변압기와 배전반이 수주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상반기는 초고압 제품군, 하반기에는 배전반 중심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 수주잔고는 5.6조원으로 전분기대비 0.6조원 증가했고 증분의 거의 대부분은 초고압변압기다. 변압기 생산능력 확장과 배전반 수주 확대로 매출과 이익은 연중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가 가능할 전망이다. 2026년 기준 PER 55.0배, PBR 11.1배다.

1Q26 영업이익 1,266억원(YoY +45.0%)으로 컨센서스 부합

1분기 매출액은 13,7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33.4% 증가했다. 국내외에서 데이터센터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견조한 수요를 기반으로 전력사업 중심 외형 확대가 이어지는 중이다. 자동화는 자동차, 반도체 고객 비중 확대로 전년대비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영업이익은 1,26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45.0% 증가했다.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된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 이익률은 10%를 상회한 것으로 보인다. 1분기에 은, 전기동 등 주요 원재료 가격 상승이 원가 부담 요소로 작용했으나 환율 상승으로 만회했다. 전력기기는 인건비가 집중적으로 반영되며 일시적 감익을 기록했다. 주요 원재료 가격은 최근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판가 인상으로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려할 요소는 아니다. 전력인프라는 가파른 매출 성장과 함께 두 자리 수 마진을 유지하고 있다. 변압기, 배전반 등 수주 산업 중심의 성장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 확대와 연계되는 점진적 이익률 상승이 기대된다. 연내 빅테크향 추가 수주가 다수 기대되며 납기가 빠른 특성을 감안하면 규모에 따라 향후 실적 추정치 상향에 기여할 수 있다. 자동화는 수익성 회복 기조가 유지되는 중이다. 자회사는 동남아와 미국 법인은 양호한 실적을 기록 중이나 국내 자동차 전장 사업과 중국 법인은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배전 사이클 진입. 고객사 및 제품군 확대로 생산능력 확장 필요성 증가

빅테크 데이터센터 투자가 증가하면서 구조적 성장세가 나타나는 중이다. 온사이트 발전원, ESS 등의 영역에서 대응 가능한 제품군이 확대되고 있으며 연내 유의미한 규모의 매출 및 수주가 기대된다. 2027년까지 미국 유타 MCM 공장 생산능력 확대가 진행되고 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국내 청주 공장에도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고 텍사스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신규 사이트 확대도 적극 검토되는 모습이다.

2026년 4월 22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SGC에너지 (005090)

SMP 상승과 발전원가 하락

BUY (유지)

목표주가(12M)	76,000원
현재주가(4.21)	52,8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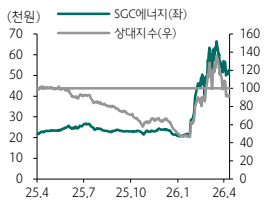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388.47
52주 최고/최저(원)	66,500/20,500
시가총액(십억원)	760.8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14,409.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03.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9.6
외국인지분율(%)	5.01
주요주주 지분율(%)	
이우성 외 8 인	54.76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631.0	2,696.2
영업이익(십억원)	141.9	184.7
순이익(십억원)	15.0	49.0
EPS(원)	1,254	3,484
BPS(원)	48,045	50,08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355.0	2,460.7	2,699.1	2,622.8
영업이익	189.6	95.8	178.9	227.7
세전이익	54.9	(106.7)	81.6	159.3
순이익	65.0	(61.4)	48.6	109.2
EPS	4,512	(4,259)	3,374	7,579
증감율	56.72	적전	흑전	124.63
PER	5.47	(5.15)	15.65	6.97
PBR	0.47	0.45	1.04	0.93
EV/EBITDA	6.11	9.15	8.23	6.89
ROE	8.80	(8.41)	6.79	14.07
BPS	52,584	48,666	50,740	57,020
DPS	1,700	1,300	1,300	1,3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76,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SGC에너지 목표주가 76,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한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발전/에너지는 SMP 약세를 극복하며 이익이 개선되었고 건설/부동산도 기존 수주잔 중심의 안정적 실적이 유지되는 중이다. 2025년 10월 이후 국내산 미이용 우드칩 사용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비용 수입산 원가 투입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하반기로 갈수록 SMP는 우상향 추세가 예상되며 REC 발급량 확대와 함께 발전 부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년 기준 PER 15.6배, PBR 1.0배다.

1Q26 영업이익 356억원(YoY +102.8%)으로 컨센서스 상회

1분기 매출액은 6,12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0% 감소했다. 발전/에너지는 SMP 하락에도 REC 판매 증가로 외형이 성장했지만 나머지 부문의 외형은 둔화되었다. 건설/부동산은 해외 플랜트 공정 진행으로 안정적인 매출 규모를 유지 중이다. 영업이익은 35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02.8% 증가했다. 발전/에너지는 우드펠릿 가격 안정화로 원가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이다. 국내산 미이용 바이오매스 원재료 투입원가는 하락하는 한편 REC 발급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이익 스프레드가 확대될 수 있다. SMP는 완만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시차를 고려하면 3분기까지 이익률은 우상향 추세를 지속할 전망이다. 건설/부동산은 기존 프로젝트의 수익이 개선되는 구간에 진입했다. 유리는 생산설비 보수 종료 이후 생산수율이 증가하며 이익이 성장했다. 온실가스배출권은 소량 판매가 이뤄졌으며 2026년 들어 배출권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증익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빨라지는 데이터센터 사업 속도

2026년 4월에 신규 법인 2개사 설립을 완료했다. SGC AI 인프라에서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1차 40MW는 2026년 4분기 중 착공이 시작될 예정이며 시범운영 시점은 2027년 3분기로 기존 계획보다 1개 분기 가량 단축되었다. 전력기자재 발주는 완료되었고 전력계통영향평가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2027년 2분기에 전력수전이 가능할 예정이다. 향후 데이터센터 용량이 300MW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확정되면 SGC 데이터 파워를 통해 전력 공급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기존 운영 중인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는 원전 발전자회사와 REC 장기 공급계약이 맺어진 상태이지만 만약 계약 변경이 가능할 경우 직접 전력 공급 또한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

2026년 4월 22일 | 산업분석_Update

방위산업

Patriot 요격미사일 수요와 공급: 수급 불균형 지속 전망

Overweight

관심종목

*CP 2026년 4월 21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079550)

BUY I TP 1,110,000원(상향) I CP 909,000원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천궁-II 수출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Patriot 요격미사일 공급 부족

현재 천궁-II의 수요 모멘텀은 1) 수출국 확대, 2) 기존 수출국향 추가 수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모멘텀은 향후 Patriot 요격미사일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는 전망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Patriot 요격미사일의 수급 추정을 통해 천궁-II 수출 모멘텀 강도를 가늠할 수 있다.

Patriot 요격미사일 공급: 연간 650발에서 2030년 말 2,000발까지 점진적 확대

Patriot 요격미사일은 크게 PAC-2와 PAC-3로 구분된다. PAC-3 요격미사일은 PAC-2 대비 성능이 개선됐고 목표물 직접 타격 방식을 적용해 탄도미사일 요격 역량이 크게 향상됐다. PAC-3는 다시 PAC-3 CRI와 PAC-3 MSE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PAC-3 MSE는 현존 Patriot 요격미사일 중 가장 최신형이다. PAC-3 CRI만 사용하는 국가는 없으며 CRI와 MSE를 혼용하는 국가들은 점차 PAC-3 MSE의 전력화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PAC-3 MSE 공급 능력에 분석의 초점을 맞춘다. Lockheed Martin에 따르면 PAC-3 MSE 연간 생산능력은 지속적인 증설을 거쳐 현재 650발 수준까지 확대했다. 추가적으로 2030년 말까지 연간 생산능력을 2,000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PAC-3 MSE 부품 공급망 여건을 고려하면 목표 시점 내 연간 2,000발 생산능력 달성 가능성은 여전히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Patriot 요격미사일 수요: 누적된 기존 수요에 전쟁 이후 재고 축적 수요가 추가

Patriot PAC-3 MSE는 공급 여건 대비 수요가 매우 많은 상황이다. 우선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전의 PAC-3 계열 수요는 1) 미국 및 해외 운용국의 PAC-3 MSE 수요, 2) PAC-3 CRI 운용국의 CRI 수요로 구분할 수 있다. FY2024년 미 육군 예산서에 반영된 PAC-3 MSE 물량의 인도 시작 시점이 2026년 9월로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PAC-3 MSE는 전쟁 이전부터 이미 수급 불균형이 존재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미 육군에 인도된 PAC-3 MSE 누적수량은 2,000발 이하로 추정된다. 반면 미 육군의 PAC-3 MSE 최종 소요/조달 목표치는 약 1.4만발 수준이어서 미국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미국 외 국가들의 PAC-3 MSE 수요는 각종 보도자료와 비공개 수주를 감안할 때 3,000발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약 600~900발만 인도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종합하면 전쟁 발발 이전 기준으로도 인도 필요 물량은 약 1.5만발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쟁 발발 이후에는 기존 수요에 재고 축적 수요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1) 미국과 중동 PAC-3 MSE 재고축적 수요, 2) 중동 PAC-3 CRI 재고 축적 수요가 존재한다. 이번 전쟁에서 실제 발사된 Patriot 요격미사일의 수량과 현재 재고는 공개되지 않아 추정에 한계가 있다. 다만 이란의 드론/탄도미사일 공격이 수천 회 이상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동 Patriot PAC-2 및 PAC-3 계열 재고는 상당 부분 소진됐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PAC-3 MSE 생산능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수요가 워낙 많아 당분간 수급 불균형은 지속될 전망이다.

1)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1Q26프리뷰: 기대치 부합. 미국 Patriot를 보완할 천궁-II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 목표주가를 1,110,000원으로 기존대비 56.3% 상향하며 투자의견 매수 유지한다. 12MF EPS에 목표 PER 50배를 적용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다. UAE의 천궁-II 요격미사일 긴급 소요가 있었지만 원가 투입 기준 진행률에 따라 실적을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1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올해 분기별 영업이익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1분기가 가장 높고 4분기가 가장 낮은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된다. 한편 Patriot 요격미사일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다. 단기간 내 증산이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천궁-II의 수출 확대 기대감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주가 기준 2027년, 2028년 PER은 각각 37.7배, 31.2배이다.

1분기 매출액은 1.1조원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내수와 수출이 각각 1.3%, 94.5% 성장할 것으로 추정한다. 내수는 1Q25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수주잔고의 매출 인식 확대를 가정했다. 수출은 UAE를 중심으로 천궁-II 매출 인식이 확대되며 실적 성장을 주도할 전망이다. 영업이익은 1,236억원으로 전년대비 8.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고스트로보틱스의 영업손실이 지속되겠지만 매출 규모 확대에 따라 영업이익은 증가할 것으로 가정했다. 매출액 성장률 대비 영업이익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1Q25에는 개발비 투입이 이연됐던 반면 1Q26에는 해당 비용이 반영될 것으로 가정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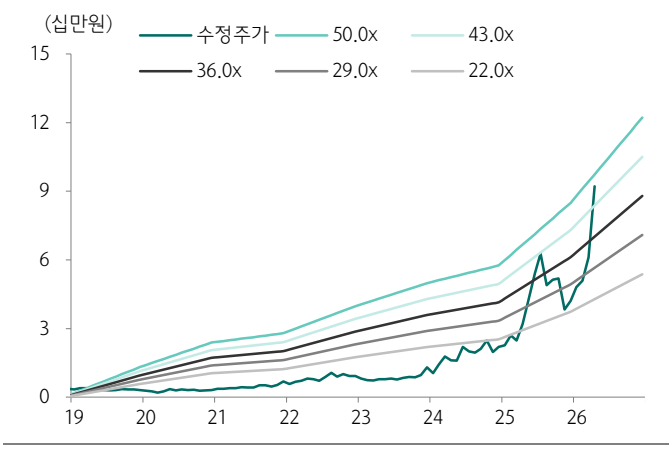
도표 6. LIG넥스원 분기별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십억원)

	2025				2026F				1Q26 증감률(%)	
	1Q	2Q	3Q	4Q	1QF	2QF	3QF	4QF	YoY	QoQ
매출액	**908**	**945**	**1,049**	**1,405**	**1,069**	**1,139**	**1,153**	**1,542**	**17.8**	**(23.9)**
내수	747	785	883	1,036	756	777	749	1,104	1.3	(27.0)
수출	161	160	166	368	313	362	404	438	94.5	(15.0)
영업이익	**114**	**78**	**90**	**39**	**124**	**109**	**107**	**98**	**8.8**	**219.6**
세전이익	**103**	**123**	**69**	**(16)**	**127**	**121**	**109**	**68**	**23.8**	**흑전**
순이익	**84**	**105**	**59**	**5**	**102**	**97**	**88**	**87**	**21.1**	**2,100.3**
영업이익률(%)	12.5	8.2	8.5	2.8	11.6	9.6	9.3	6.4	-	-
세전이익률(%)	11.3	13.0	6.6	(1.1)	11.9	10.7	9.5	4.4	-	-
순이익률(%)	9.3	11.1	5.7	0.3	9.5	8.6	7.6	5.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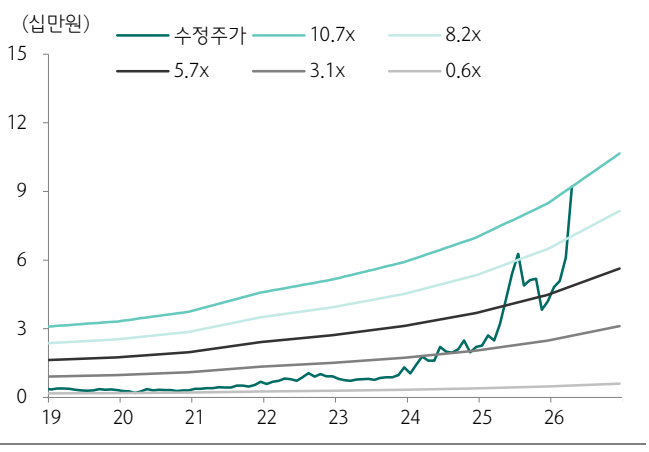
자료: LIG넥스원, 하나증권

도표 7. LIG넥스원 12M Fwd PER



자료: LIG넥스원, 하나증권

도표 8. LIG넥스원 12M Fwd PBR



자료: LIG넥스원, 하나증권

2026년 04월 22일 | 기업분석

CJ대한통운 (000120)

1Q26 Pre: 택배 MS 상승, but 이익 증가는 더딘 상황

BUY (유지)

목표주가(12M)	165,000원(하향)
현재주가(4.21)	10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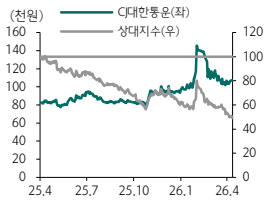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388.47
52주 최고/최저(원)	145,700/77,600
시가총액(십억원)	2,440.9
시가총액비중(%)	0.05
발행주식수(천주)	22,812.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02.0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1
외국인지분율(%)	17.97
주요주주 지분율(%)	
CJ제일제당 외 2 인	40.19
국민연금공단	11.3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2,802.8	13,312.7
영업이익(십억원)	568.2	611.4
순이익(십억원)	318.1	352.0
EPS(원)	13,015	14,445
BPS(원)	224,657	241,69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2,116.8	12,284.7	12,636.3	13,255.9
영업이익	530.7	508.1	524.7	578.1
세전이익	378.3	329.7	333.4	393.4
순이익	248.5	242.1	234.0	276.1
EPS	10,893	10,612	10,257	12,101
증감율	10.54	(2.58)	(3.35)	17.98
PER	7.75	8.91	10.43	8.84
PBR	0.46	0.49	0.53	0.50
EV/EBITDA	4.50	5.00	7.27	6.72
ROE	6.58	5.98	5.50	6.14
BPS	185,424	194,059	203,616	215,018
DPS	800	800	800	1,000

Analyst 안도현 dohyunahn@hanafn.com

1분기 영업이익 991억원(+16%) 전망

1분기 CJ대한통운의 매출액은 4% (YoY) 증가한 3조 970억원, 영업이익은 16% 증가한 991억원(영업이익률 3.2%)으로 전망한다. 택배 사업부의 물동량은 14% (YoY) 증가하며 시장 성장률(+6%)을 큰 폭으로 상회했고, CJ대한통운의 택배 점유율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택배 ASP가 하락(-2%)했으나 전체 택배 사업부 매출액은 11% (YoY)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W&D 성장에도 불구하고 항만 물동량 위축으로 전체 CL 매출액은 5% (YoY) 증가로 예상한다. 글로벌 매출액은 6% (YoY)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미국/인도 법인은 양호하나 전쟁 이후 포워딩 사업 위축이 가시화 되고 있다.

수익성 개선이 가파르지 않은 이유

CJ대한통운의 택배 물동량 증가와 W&D 사업 확장으로 기존 CJ대한통운의 2026년 연간 이익 성장률을 10%로 전망했었으나 2%로 추정치를 하향한다. 택배 사업부는 물동량 성장에 기반한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글로벌 사업부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 대비 더딜 전망이다. 또한 전쟁 이후 유가 상승으로 CL사업부의 원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항만 물동량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W&D 사업부는 2025년 이마트 등 대형 커머스사의 물류자산을 인수한 바 있는데, 센터 안정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익성 향상 속도가 기대 대비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큰 방향성은 유효하나 이익 추정치 하향으로 목표주가 하향

다만 큰 방향에서 CJ대한통운의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택배 부문은 주7일 배송 효과로 MS 제고를 통한 성장이 기대되고, 국내 W&D 시장의 외주화 흐름과 함께 CJ대한통운의 W&D 사업도 수익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글로벌 포워딩 네트워크 확장 전략에서도 성과를 기대한다. 성장 스토리는 유효하기 때문에 Target Multiple인 P/E 15배를 유지하되, 하향된 EPS 추정치(12MF 11,176원)를 반영하여 목표주가를 165,000원으로 하향 조정한다. 현재 12MF P/E는 9배 대이기 때문에 저평가 구간에 있고, 올해 상저하고의 이익 흐름이 예상되기 때문에 2분기를 저점으로 매수를 추천한다.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31,150	5.4%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790	-2.4%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0,200	19.1%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9,900	53.1%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0.47	6.2%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5.07	20.6%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63.96	36.8%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29	21.6%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005930.KS)	4/20	216,000	219,000	1.39%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SK하이닉스 (000660.KS)	4/20	1,128,000	1,224,000	8.51%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KB금융 (105560.KS)	4/20	162,300	160,400	-1.17%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한국금융지주 (071050.KS)	4/20	257,000	262,000	1.95%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HD건설기계 (267270.KS)	4/20	162,900	176,200	8.16%	• 신흥국 인프라·광산 투자 수요와 호주 등 해외 판매 확대 지속으로 외형 성장 기대 • 2025년 글로벌 건설장비 판매가 3년 간의 역성장을 마무리하고 반등에 성공
삼아알미늄 (006110.KS)	4/20	53,000	58,500	10.38%	• 2023년 완료된 LIB용 알루미늄박 경쟁력 강화 투자에 이어 추가 투자 지속 • 자동차 제조사들과 배터리 고객사들의 부진에도 ESS 물량 증가로 인한 실적 기대
리가켐바이오 (141080.KQ)	4/20	197,400	194,100	-1.67%	• 파트너들의 임상개발 진전 및 자체 보유 파이프라인의 임상진입, 기술수출 기대 • 2027년까지 신약 ADC 파이프라인에서 약 10개의 IND 신청 예정
덕산테코피아 (317330.KQ)	4/20	25,650	25,300	-1.36%	• 미국 내 한국 셀 메이커들의 ESS 생산 본격화되는 과정에서의 낙수효과 기대 • 자회사 덕산일렉테라의 북미 전해액 공장 본격 가동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
LIG아큐버 (073490.KQ)	4/20	47,850	55,300	15.57%	• 5G SA 시대 맞이해 시험장비/스몰셀 매출 크게 증가할 전망 • 통신장비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오름 폭이 적은 상태라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
와이엠티 (251370.KQ)	4/20	17,350	17,440	0.52%	• AI 시대를 맞아 PCB 산업 고도화 추세. 도금 소재 품질 요구 상승 수혜 가능 • PKG 기판 업체들의 설비투자 확대와 AI·5G·IoT 확산에 따른 고사양 기판 수요 증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This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4.18%	+1.02%p	+70.04%	+24.08%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298,500	11.59%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20	16,520	18,650	12.89%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224,000	19.18%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51,700	0.98%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RFHIC (218410.KQ)	4/13	91,900	99,500	8.27%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19,000	30.98%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15,700	26.03%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60,400	13.04%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을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421,500	26.77%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82,500	10.81%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51,500	9.99%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425,000	44.80%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16.68%	-7.65%p	+40.09%	-5.8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유로권 2월 건설 생산 (-0.2, -0.1%)	▪ 미국 3월 소매판매 (E 1.3%, 2월 0.60%) ▪ 미국 2월 기업재고 (E 0.3%, 이전치 -1.0%) ▪ 미국 3월 미결주택매매 (E 0.8%, 이전치 1.8%) ▪ 한국 4월 전년비 수출/입 (49.4%/17.7%, 이전치 50.4% /19.7%) ▪ 독일 ZEW 경제성장예상 (E -20.4, 이전치 -8.5%)	▪ 한국 3월 전년비 PPI (E--, 2월 2.40%) ▪ 일본 3월 무역수지 (E--, 2월 ¥57.3B) ▪ 일본 3월 전년비 수출/입 (E 11.0%/6.8%, 이전치 4.2%/10.2%) ▪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속보치) (E -17.3, 3월 -16.3) ▪ ECB's Lagarde Speaks (London)	▪ 한국 1분기 전년동기대비 GDP (E 2.6%, 이전치 1.60%) ▪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E --, 이전치 107) ▪ 미국 4월 제조업 PMI (E 52.8, 이전치 52.3) ▪ 미국 4월 서비스업 PMI (E 50, 이전치 49.8) ▪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E --, 이전치 11) ▪ 일본 4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6) ▪ 일본 4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3.4) ▪ 유로권 4월 제조업 PMI (E 50.5, 이전치 51.6)0 ▪ 유로권 4월 서비스업 PMI (E 49.5, 이전치 50.2)	▪ 일본 3월 전년비 CPI (E 1.8%, 이전치 1.60%) ▪ 일본 3월 전년비 CPI ▪ 미국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E 48.3, 이전치 47.6)	
4.26	4.27	4.28	4.29	4.30	5.1	5.2
	▪	▪ 일본 3월 실업률 (E --, 이전치 2.60%) ▪ 일본 3월 유효구인배율 (E --, 이전치 1.19) ▪ 미국 4월 CB 소비자기대지수 (E 88.8, 이전치 91.8) ▪ BOJ 정책 금리 (E --, 이전치 0.75%)	▪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E 1.0%, 이전치-1.3%) ▪ FOMC 금리 결정 (E 3.50~3.75, 이전치 3.5~3.75) ▪	▪ 유로권 4월 GDP SA (E --, 이전치 0.2%) ▪ 유로권 4월 CPI(전년대비) (E --, 이전치 2.6%) ▪ 유로권 4월 CPI(전월대비) (E --, 이전치 1.3%) ▪ 유로권 3월 실업률 (E --, 이전치 6.2%) ▪ 미국 4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이전치 --) ▪ 미국 1분기 GDP SA(전기대비) (E --, 이전치 0.2%) ▪ 중국 4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0.4) ▪ 중국 4월 종합 PMI (E --, 이전치 50.5)	▪ 한국 4월 수출 YoY (E --, 이전치 48.30%) ▪ 미국 4월 ISM 제조업 지수 (E --, 이전치 0.75%)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